

기후 위기, 대중에게 더 큰 고통이다

기후변화를 체제 변화로 해결하자

파키스탄의 초대형 홍수는 인류가 직면하게 될지도 모를 미래를 미리 보여 줬다.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3300만 명이 이재민이 됐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화석연료 중독”이 인류를 “미지의 파괴 영역”으로 끌고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에서도 기후 위기의 피해가 본격화됐다. 집중호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 방에서 일가족이 사망하고, 포항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어난 물에 7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포스코 제철공장에 불이 나고 물에 잠겨 가동이 멈췄다. 3월에는 초대형 산불로 울진 핵발전소에서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

기후 위기는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사회 인프라를 무력화하며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난해 11월,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아무런 실질적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이 회의는 사반세기 동안 실패해 왔다.

심지어 기후 변화에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내놓은 약속들이 다 지켜진다고 해도 기후 위기를 멈출 수 없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기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요한 희생자가 됐다. 전쟁이 시작되자 주



7명의 생명을 앗아간 포항 주차장 침수 사고 지금의 사회 인프라는 기후 위기에 매우 취약하다

요국 정부들은 입에 발린 말조차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바이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찾아가 석유 증산을 요구하고, 유럽 정부들도 석탄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핵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그린 택소노미’를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심분 활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위험천만한 핵발전과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발전을 대

폭 늘리려 한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지키겠다는 말은 허울일 뿐이다.

자본주의 체제

선진국들이 지난 40년 동안 기후 위기 대응에 실패한 이유는 기후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하는 해결책을 고집해 왔기 때문이다.

화석연료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자산과

이윤, 화석연료에서 얻은 에너지와 소재로 쌓아 올린 자본가들의 부와 권력, 이를 뒷받침하는 시장의 규칙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와 생태적 고려가 아니라 기업주들의 이윤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으려 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는 “미지의 파괴 영역”으로 질주하고 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면 체제를 바꿔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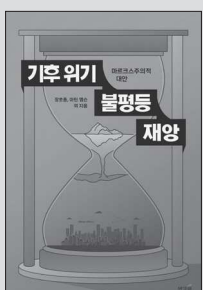
2019년 전 세계에서 분출한 급진적 기후 운동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선진국 정부들과 의회는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감축 목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한국 국회에서도 기후 비상사태 결의안이 통과되고 처음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이 운동은 평범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항의에 나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야 할 이유를 깨닫고 자신감을 얻었다. 9.24 기후정의행동도 전 세계 500여 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리는 국제 공동행동의 일부다.

기후 재앙을 피하려면 자본주의의 엔진을 멈춰야 한다. 그러려면 운동은 더 광범하고 급진적으로 돼야 한다.



추천 책



기후 위기, 불평등, 재앙
마르크스주의적 대안
장호중, 마틴 엠슨 외 지음, 책갈피,
624쪽, 24,000원



추천 소책자



※ 구입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olidarity.org



[전면 개정판] 베락이들을 위한
환경 가이드
마르크스와
반자본주의 생태학?
마틴 엠슨 지음, 김중환 옮김,
노동자연대, 84쪽, 3,000원



기후 변화
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닌가?
마틴 엠슨 지음, 최수진 옮김,
노동자연대, 73쪽, 3,000원

보통 사람들에게 기후 위기의 책임을 지우지 마라

전례 없이 심각한 기후 재난이 노동계급 대중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주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그 비용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겨 왔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나 유류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가격을 올려 평범한 사람들의 소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물가 인상으로 인한 평범한 대중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 기후 위기를 막는 데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 동안 전기소비량은 빠르게 늘어왔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리 절약해도 기업주들이 전기 소비량을 대폭 늘려왔기 때문이다. 전체 전기 소비량 중에서 가정용 전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5퍼센트에서 2021년 14.5퍼센트로 오히려 줄었다.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소비는 대개 필수재와 연관된 것으로 쥐어짤다고 줄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평범한 노동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발전소 노동자들

자들은 교통수단부터 가전제품, 냉난방과 주거환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지 선택의 여지도 거의 없다.

반면, 기업주들은 이윤을 얻기 위해 전기와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한다. 또 비

율을 줄이려고 에너지 효율이 나쁜 제품을 양산한다. 특히, 오늘날 청년들이 거주하는 1인 주택에 설치된 싸구려 가전제품들은 에너지 효율이 극도로 낮은 것으로 악명 높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처한다며 석탄발전소와 자동차 산업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공격하기도 한다. 그러나 평생을 땀 흘리며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전환의 비용을 '분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런 요구는 지난 몇 년간 광범하게 지지를 넓혀 왔다. 기후정의 운동이 쌓은 성과다.

기후 운동은 전기요금 인상, 해고와 임금 삭감 같은 고통 전가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청년들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지구를 위한다며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에 냉담한 태도를 보여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된다.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지지할 리 없기 때문이다.

기후정의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다.

COP27은 이집트 군사 독재자의 사기극

27차 유엔 기후회의(COP27)가 이집트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이집트 엘시시 군사정권은 이집트 민중이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수많은 활동가들을 살해하고 가둔 잔인한 독재정권이다. 한국의 전두환처럼 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손에 묻어있는 핏자국을 씻어낼 요량으로 COP27 회

의를 유치했다. 이 사기극에 반대해야 한다.

이집트 현지의 활동가들은 올해 초 기후 위기와 민주주의 파괴를 우려하는 전 세계 활동가들에게 COP27 불참을 호소했다.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이집트 난민들도 이 운동에 함께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회담장 앞 시위를 불허할 것이고 멀찍이 따로 격리된 공간에서

보여 주기식 시위만 허용할 예정이다. 그나마 평범한 이집트인들에게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다.

한국의 기후 운동도 이집트 기후 운동가들의 COP27 이집트 개최 반대와 회의 불참 호소를 지지하자.

이집트 현지 활동가들의
호소문 전문보기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wspaper.org/online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workersolidarity.org/join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시사/이슈 토크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맑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은

기후 위기의 원인부터 기후 운동 내 쟁점들과 진정한 대안을 살펴봅니다. 엉터리 해법은 가려내고요, 기후 위기를 멈추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만나보세요.



영상 바로가기

1. 정의로운 기후 해결 - 그게 뭔데?
2. 화석연료와 자본주의 - 질긴 인연
3. 기후 경고 하루이틀 아닌데 왜 이 지경?
4. 신기술 - 기후 위기 해법이 될까?
5. 핵발전 - 탈탄소 위해 미워도 다시 한번?
6. 그린 뉴딜과 정의로운 전환
7. 노동계급, 기후 위기 공범인가?
8. 기후 위기와 농축산업, 채식
9. 과잉인구가 문제? 탈성장이 대안?
10. 마치며: 체제를 바꾸기에는 시간이 없을까?

노동자연대 TV